

DuPont, 2003년 경영 좋다 말고...

FT, 1/4분기 순이익 17.7% 증가 ... 에너지·원자재 가격상승 부담

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인 DuPont이 모든 사업부문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2003년 1/4분기 이익이 11% 늘었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.

Financial Times에 따르면, DuPont은 회계기준 변경과 벤레이트 소송비용 7800만달러를 제외하면 1/4분기의 순이익이 5억6400만달러로 2002년 1/4분기 4억7900만달러보다 17.7% 늘어났으며, 주당 순이익도 48센트에서 56센트로 증가했다.

DuPont은 2003년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2/4분기에는 2배로 늘어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연금 부담 등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.

1/4분기에는 가격을 1% 낮추었으나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물량이 7% 증가한 데 힘입어 매출은 14%가 증가한 70억달러를 기록했다.

한편, DuPont은 2003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주당 1.16달러의 전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5/06>